

초대의 글

**“이웃과 함께 하며 오시는 이에게 행복을 가득히 주는
국제소망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소망교회는 삶속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국제소망교회는 영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제소망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대안학교와 방과후 교실 및 악기교실을 운영하여 글러벌 리더로 키우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국제소망교회를 늘 기억해주시고, 부담을 갖지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저와 교우들은 여러분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성규 목사 드림

예배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1부) 09:00, (2부) 11:00 (저녁예배) 19:00	국제소망교회 본당
수 요 저 녁 예 배	수요일(1부) 11시 (2부) 19시	국제소망교회 본당
금 요 성령 충만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국제소망교회 본당
매일 새벽, 저녁기도회	월~금요일 6시, 19시	국제소망교회 본당

Profile



최성규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왔고, 한국부흥사 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유인대학교 Ph. D 과정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하였다.

서울 방배동 일광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겼고, 부천 괴안동에서 삼익교회를 설립하여 11년 동안 성장시켰으며, 2003년 1월에 국제소망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영적훈련으로 성도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육하고 있으며, 국내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로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2023. 05. 28.

제 23-22



국제소망교회

International Hope Church

표 어 :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해!(행 9:31)



담임목사 최 성 규

문서선교회:이윤형목사, 홈페이지, 대안학교:임광혁 목사, 중보기도.전도폭발:안명준목사, 새신자(VIP):서형종목사, 전도담당:이을수전도사, 중고등청년부:에스더 송목사, 반주:최세안간사, 영아·유치부:장진아전도사, 유년·초등부:정병근목사, 찬양단리더:노민주자매, 김상현형제
방송미디어:이상학전도사, 최다니엘, 장애우·실버담당:김예일전도사, 차량:정병현전도사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로 153(고덕동) 010-3932-3927, 031-663-3928

E-mail:samiak12@daum1.net / 홈페이지 : 다음 국제소망교회

주일 오전 예배

〈 부부의 주일 〉

오전 10시 45분

집례 : 최성규 목사

경배와 찬양 소망찬양단

- * 찬 송 〈 찬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 같 이
- * 예배의 부름 〈 시 146:1-2 〉 집 례 자
- * 송 영 오케스트라
- * 기 원 집 례 자
- * 찬 송 〈 찬 21장 다 찬양하여라 〉 다 같 이
- * 교 독 문 〈 6번 시 10편 〉 다 같 이
- *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 찬 송 〈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다 같 이
- 대 표 기 도 최승빈 전도사
- 성 경 봉 독 〈 엡 1:22-23, 빌 2:3 〉 집 례 자
- 특 송 오케스트라
- 생명의 말씀 < 성도 관계 > 최성규 목사
- 봉헌(찬양연주)예물 〈 헌금위원/색소폰연주 〉 다 같 이
- 인사 및 새가족 환영... 〈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 집 례 자
- 교 회 소 식 집 례 자
- * 회 중 찬 송 .. 〈 챔버오케스트라 / 208장 내 주의 나라와 〉 .. 다 같 이
- * 축 도 〈 송영반주:챔버오케스트라 〉 최성규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국제소망교회 10대 확신 암송구절

1. 구원의 확신(요일 5:12-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사죄의 확신(롬 8:34-35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3. 기도 응답의 확신(요 16:23-24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4. 승리의 확신(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인도의 확신(잠 3: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6. 임마누엘의 확신(히 13:5-6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 권능의 확신(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8. 축복의 확신(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 전도의 확신(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0. 행복의 확신(엡 1:3-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은 10대 확신 말씀을 늘 암송하고 누림시다

어린이 예배

< 매주일 오전 11시 1층 어린이예배실 >

< 새가족의 길 조명단 >

5월 28일 주일오후 1시 30분

남 선 교 회	양육자 : 최근영 집사
여 선 교 회	양육자 : 오재금 사모
학 생 , 청 년 회	양육자 : 이선영 집사
교 역 자 회	양육자 : 최성규 목사

<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 매주 토요일 >

남 선 교 회	1층 전체, 소예배실, 화단, 카페 남녀화장실, 로비, 주차장, 1층계단
여 선 교 회	3층 전체, 청년부실, 식당, 남녀화장실 3층 계단, 유아실
학 생 , 청 년 회	2층 전체, 대예배실, 새가족실, 교역자실, 힐링센터, 기도실, 2층계단

< 수요일예배 >

1부 : 오전 11시 찬양인도 : 이상학 전도사 설교 : 서형종 목사

2부 : 저녁 7시 찬양인도 : 이상학 전도사 설교 : 최성규 목사

다음 주일예배 청지기

안내 위원 : 서형종 목사, 에스더송 목사

봉헌 찬양 : 비올라 정순재 연주

봉헌 위원 : 민승진 집사, 이송희 자매, 정서영 자매

다음주기도 : 이선영 집사

교 회 소 식

2023년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해(행 9:31)

1.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Vip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임목사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일예배는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3.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4. 어린이 예배는 5월 7일 주일부터 오전 11시 1층 어린이예배실에서 합니다.
4. 수요일 1부 에스더송 목사, 서형종 목사가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5. 새로 나오신 분들은 VIP안내위원들에게 새생명의 길을 신청바랍니다.
6. 새벽기도회(월-금) 새벽 6시 1층 소예배실에서 담임목사가 인도합니다.
7. 매일저녁기도회(월-화,목-금요일) 소예배실에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월,화,목,금요일은 에스더 송목사, 금요일은 담임목사가 인도합니다.
8. 2층에 힐링치유센타를 열었습니다. 오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계좌 : 기독교한국침례회소망교회 농협 355-0083-4167-23

성경에서의 질문(11)

Q : 이스라엘 군대가 대군이었다면 에돔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회군케 되었으며 가나안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민20:14-21, 수7장)

A : 민26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수는 601,730명으로 에돔을 누르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다. 그러나 민20:14-21에 의하면 에돔왕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저지하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갔다고 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 할 때도 유약해 보이는 아이성을 치기 위해 3,000명 정도의 군대를 보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수7:4). 그러나 뜻밖에도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36명을 쳐 죽이고 계속 추격해 옴으로 그들은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와같은 곤경은 계속되었다. 결국 군대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못함을 보여준 실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웅장하고 찬란했던 옛 로마 도시들이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채 북아프리카의 모래사장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골짜기와 언덕마다 화석류가 발견되는 것은 옛날의 영광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왜 폐허속에 묻히게 되었으며 골짜기에 화석이 되었는지를 묻게 하는 것이다. 결코 군대의 수나 무기가 모자라서 망한 것은 아니었다.

Alan Crown의 보고에 의하면 주전 2,3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비가 적당히 내림으로 백성과 군대가 생존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대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자연의 재해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신 2:9 / 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압 족속들을 공격하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의 땅은 조금도 너희에게 떼어 주지 않겠다.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들이니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르 지역을 영원한 소유지로 떼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신 앙 상 담(기)

질문 / 80대 남자 노인입니다. 죽음 후엔 무슨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성경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답변 /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사입니다. 특히 죽음에는 예외자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무덤이나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사후 세계에서 필요한 장식품과 보화들을 소장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사후의 세계는 막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신앙에 근거한 준비나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창조로 막을 엽니다. 그리고 '낳고, 죽고'로 이어지는 순한 사람들 이야기로 진전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지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몇 가지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창조주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도처에서 밝히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는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나 절망, 구조악, 부조리도 없습니다. 아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한 심판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80대이시라면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걷는 길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은 불안과 초조로 이어져 삶을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표가 확실한 여행이라면 기대와 그리움으로 걷는 길이 탄탄하고 행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수십억의 크리스천이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에 중지부를 찍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